



관덕정

2016년 9월 27일(통권 제77호)

41967 대구광역시 중구 관덕정길 11(남산동) 전화 : (053)254-0151

팩스 : (053)253-0666 e-mail : daegusaint@gmail.com

홈페이지 : <http://www.daegusaint.org>



순교 복자 기념비 앞에서

한 명 수(미카엘)

기획위원회

지난 9월 3일, 관덕정순교기념관에서는 ‘순교 복자 기념비’ 제막식이 있었다. 이 기념비에는 2014년 시복된 124위 복자 중 관덕정에서 순교한 복자 11위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기념비를 세운 이유는 그분들이 복자 위에 이름을 기념함과 동시에 관덕정순교기념관을 방문하는 순례자들에게 적어도 어떤 분들이 이곳에서 순교하였는지, 복자가 되신 분들은 누구인지 정도는 알려주어 그분들을 기리기 위함이다. 나아가 그분들의 삶과 순교정신을 되새겨봄으로써 그 영성을 오늘의 우리가 이어받아 더욱 우리 믿음을 공고히 하고, 생활 안에서 우리가 그 믿음을 실천하는 데 도움을 받아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하느님과 하나 되는 그날까지 ‘참 신앙인’으로 살도록 하는 데 있다.

순교자들이 박해시대에 보여준 신앙의 힘은 실로 놀랍기 그지없다. 그분들은 하느님께 대한 믿음, 희망, 사랑 때문에 자신의 죽음을 자유롭게 선택하였고, 그 죽음으로 진리를 증거하고 하느님을 증거하였다. 하느님을 향한 사랑은 죽음을 넘어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과 일치하는 희망으로 이어져 마침내 기쁜 마음으로 순교를 받아들이는 영성으로 작용하였다. 오늘의 우리가 그 순교영성을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실천적 삶을 사는 것이 순교의 삶일까? 우리의 순교자들이 그러하였듯이 순교의 삶은 사랑의 삶이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삶은 공허한 이념이나 사상이 아니라 현실 안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는 실천적 삶이다. 개개인마다 세속에서의 처한 환경이 다르고 역할이 다르며, 성취해야 할 과업들이 다르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느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다. 세상을 움직이고 세상의 흐름을 좌우하는 세속적 흐름에 맞서 하느님의 법에 따라 사는 것,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의 뜻대로 세상과 인간과 사물을 보며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현세적 삶을 사는 것이다.

우리는 때때로 교회 안에서 지극히 세속적인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을 본다. 그들은 그 눈이 하느님의 눈과는 반대라는 사실조차도 모른다. 일반 사회에서 배운 세상의 가치관 그대로 교회 생활에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를 자주 목격한다. 그런 사람들이 보여주는 언행들은 얼마나 매끄러운지 정신 차려 듣지 않으면 어느새 그들의 논리에 멀려

들고 만다. 그들이 내뱉는 언행의 껍질에는 언제나 하느님과 교회의 얼굴을 그려놓고 있다. 하지만 그 이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느님의 이름을 빌어, 교회에 대한 사랑의 이름을 빌어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현세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발견한다. '신앙심의 외양 뒤에, 심지어 교회에 대한 사랑의 겉모습 뒤에 숨어서 주님의 영광이 아니라 인간적인 영광과 개인의 안녕을 추구하는 것' (『복음의 기쁨』 93항)이다. 이것을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영적 세속성'이라 말씀하셨다. 영적 세속주의자들의 언행은 겉으로는 모든 것이 제대로 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모두 자기의 것만 추구할 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은 추구하지 않는"(필리 2,21) 교묘한 방법이다. 우리 시대에 너무나 만연한 이 교묘한 방법이 교회 안에도 침투해 있고, 그것이 세속적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그렇게 실천하고, 그렇게 가르치며, 그렇게 무리를 지어 교회 안에서 자신들만의 이익과 명예를 위한 '인의 장벽'과 '인의 탑'을 쌓아가는 일은 순교자들이 보여준 숭고한 정신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삶이다.

우리나라의 순교 복자와 성인들의 삶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공통점 중의 하나는 그들이 행한 행동들은 현세적 이익과 영예와는 거리가 먼 순수 의향이라는 점이다. 결코 신앙심의 외양 뒤에, 심지어 교회에 대한 사랑의 겉모습 뒤에 숨어서 인간적인 안녕과 개인의 안위와 명예를 생각하지 않았고, 신앙과 삶을 결코 나누어서 생각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한 마디로 말하면 신앙의 가면을 쓴 세속주의자들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순교자들의 순교 정신을 생각하는 오늘의 우리는 스스로가 '신앙의 가면을 쓴 세속주의자'는 아닌지 성찰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삶의 모든 것을 잃는다고 해도 결코 아쉬워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잃는다고 해도 내 삶의 모든 것이고 존재의 궁극적인 이유인 그리스도를 얻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영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들은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온갖 불이익을 참고 견뎌낼 뿐만 아니라, 그런 사회를 사랑의 이름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순교의 삶이다.

순교자 성월에, 순교 복자 기념비 앞에 서서, 순교 성인과 순교 복자들 그리고 수많은 무명 순교자의 후손으로서 오늘의 삶에 부끄러움은 없을까를 생각해본다. 그 어느 시대보다도 물질의 영향력이 드센 이 시대에 신앙의 가면을 쓴 세속주의자들보다는 참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이가 더욱 많기에 오늘의 우리 교회가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걸어가고 있지 않은가? 순교 복자 기념비 앞에서 그분들의 삶과 정신을 묵상하는 동안 스스로를 반성해 본다. 나는 참 신앙인인가 아니면 신앙의 가면을 쓴 세속주의자인가를.

‘순교’와 ‘배교’ 사이

- 엔도 슈사쿠의 <침묵>에 나타난 인간과 신의 사랑 -

김 필 영(엘리사벳)

학예위원회

인간, 신으로부터 위로를 구하다

17세기 중반 일본 나가사키에서 48마일 떨어진 도모기라는 어촌에는 200 가구가 채 되지 않는 주민들이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었다. 이들은 에도 막부가 가톨릭을 금지, 박해함에도 은밀히 가톨릭 신자로서 신앙생활을 포기하지 않았다. 발각되면 고통스런 죽음을 각오해야 함에도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신앙을 저버리지 않게 했을까? 그들은 고단한 현실의 삶에서 신으로부터 위로를 얻었다. 논 하나 없이 밭에서 보리나 감자를 재배하고, 무거운 세금 때문에 감자나 무 혹은 풀과 나무뿌리로 생명을 연명할 수밖에 없으며, 소처럼 일하다가 소처럼 죽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이들이 가톨릭에서 위로를 받았던 것이다. 이들은 난생처음으로 가톨릭 선교사에게서 인간적인 대우를 받으며 따뜻한 인정을 맛보았고 내세에서의 천국을 약속하는 가톨릭 교리에서 위로를 얻었던 것이다. 그들은 천국에서는 그들을 괴롭혔던 세금도, 굶주림도, 병도, 노역도, 고생도 없을 것으로 상상했다.

인간, 신을 위해 목숨을 버리다

도모기 마을 주민들이 비밀리에 가톨릭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실이 관아에 고발되면서, 관아는 주민 중 세 사람, 이치조, 모키치, 기치지로를 인질로 데려가서 심문했다. 이들은 가톨릭교도가 아니라는 증거로 우선 예수의 모습이 그려진 성화를 발로 밟고 지나가야 했으며, 다음으로는 성화에 침을 뱉고 성모 마리아를 매음부로 선언해야 했다. 이치조와 모키치는 전자는 행했으나, 후자를 하지 못함으로써 온몸으로 가톨릭 신자임을 자백하게 되었다. 이 두 사람은 나가사키 거리를 끌려 다닌 후, 도모기 해안에서 수책형에 처해졌다. 이것은 바다 한가운데 세워진 나무에 몸이 묶인 채로 밀물과 썰물을 통해 천천히 고통스럽게 숨을 거두는 형벌이다. 두 사람은 순교했는데, 모키치는 순교 전 있는 힘을 다해 가톨릭 성가를 불렀다. “어서 가자, 어서 가자. 천국의 궁전으로, 천국의 궁전이라 하지만 넓고

넓은 궁전이라 하지만.” 이 성가는 수많은 신자들이 형장으로 끌려가며 불렀던 노래로, 이 지상에서의 삶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오직 천국의 궁전을 의지하며 살아온 주민들의 슬픔이 이 노래 속에 담겨져 있다.

인간, 목숨을 위해 신을 버리다

인질로 잡혀간 두 명이 순교하는 동안 마지막으로 남은 인질 기치지로는 배교를 택했다. 그는 이미 이전에도 배교한 경험이 있던 인물로서, 성격 자체는 선량하나 천성적으로 겁이 많은 인물이었다. 그는 배교 후 포르투갈 예수회 로드리고 신부를 관아에 팔아넘기며 말했다. “신부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약합니다. 저는 모키치나 이치조 같이 강한 자가 못 됩니다.” 또 그는 성화를 밝은 자신을 변명했다. “저에겐 저 나름대로 할 말이 있지요 ... 성화를 밝은 이 발은 아프고 쓰립니다. 정말 못 견디게 아프답니다. 저를 이렇게 약골로 태어나게 해놓고서 강한 자 흉내를 내라고 하느님께선 말씀하십니다. 그건 너무 무리입니다.” “신부님, 저 같은 겁쟁이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 제가 잘못했습니다.” “십년 전에만 태어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리스도교 신자로서 천당에 갔을 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배신자라고 신자들에게 경멸을 당하지 않아도 되었을 겁니다. 그만 박해 시절에 태어난 죄로 ... 원망스럽습니다. 저는 원망스럽습니다.”

인간, 인간과 신을 위해 자신을 버리다

기치지로의 고발로 감옥에 갇힌 로드리고 신부는 배교를 권유받았다. 그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배교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다져먹었다. 그러나 자신이 배교하지 않는 한 그 대신, 귀 뒤에 구멍이 뚫린 채 구덩이에 거꾸로 매달려 피를 흘리면서 고통을 받는 신도들의 신음소리를 밤새 들으면서 그는 흔들렸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야 하는 신부로서 그는 만약 그리스도가 이곳에 계신다면 어떻게 했을까를 질문 받고 그리스도가 사람들을 위해 배교했을 것으로 결론 내렸다. 그리스도라면 사랑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시키더라도 배교했을 것이라고. 로드리고는 교회에서 쫓겨날 것임을 잘 알지만 예수의 모습이 그려진 성화를 밝지 않을 수 없었다. 그때 그는 성화 속의 예수가 그에게 “밝아도 좋다. 나는 너희들에게 밝히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나, 너희들의 아픔을 나누어 갖기 위해 십자가를 짊어졌다”라고 말하는 소리를 듣는다. 이에 로드리고 신부는 결국 자신을 버리고 배교했다. 그는 자신이 교회를 배반했을지는 모르나 결코 예수를 배반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했다. 그는 지금까지와는 아주 다른 형태로 예수를 사랑하고 있다고 믿었다.

순교자현양 독서감상문 공모전

올해백해 순교 200주년 기념

순교자현양 독서감상문 공모전



Ⅰ 주제
올해백해 순교 200주년을 맞아 순교자들의 영광스러운 행적을 널리 알리고 그분들의 신심을 본받아 신앙생활을 더욱 굳건히 하기 위하여 순교자현양 독서 감상문을 공모합니다.

Ⅱ 선정 도서
① 『관덕정 순교자들의 신앙과 삶』, 관덕정순교기념관, 2016
② 『하늘가는 밝은 길』, 천주교 대구대교구 시복시성위원회, 2014
▷ 도서 배포 : 관덕정순교기념관을 직접 방문하시거나 사무실로 신청하시면 보내드립니다.

Ⅲ 응모 기간 2016. 9. 5(월) ~ 10. 30(일)

Ⅳ 응모 자격 천주교 대구대교구의 신자

Ⅴ 시상 내역

구 분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佳作	입선
일반·대학부	전체	1명	2명	3명	
고등부	1명	2명	3명	약간 명	
중등부	1명	2명	3명		

* 대상 및 부문별 최우수상 : 중국 신지순에 경비 지원

Ⅵ 참가 규정
▷ 글자크기 : 이력한글 기준 11pt (행간 180%)
▷ 분 양 : 2페이지 원고지 기준 15매 ~ 25매
▷ 작품은 2쪽부터 작성 표지에 성명 및 생애력, 소속분당 (일반 중, 고등학교에서 활동할 경우는 소속 학교명), 연락처(전화번호, 집 주소) 등 기입.
▷ 제목은 작품 상단에 기재하지만 이름 및 기타 정보는 기재할 것.
▷ 파일로 제출할 경우는 원인의 이름으로 파일명을 붙일 것.

Ⅶ 제출 방법
▷ 방 문 : 관덕정순교기념관 사무실
(TEL. 053-254-0151 FAX. 053-253-0666)
▷ 우 편 : (941967 대구광역시 중구 관덕정길 11(남산동))
▷ 전자우편 : dsngusaint@gmail.com
▷ 접수마감 : 2016년 10월 30일까지
▷ 방문 (매감일 17:00), 우편(매감일 소관), 전자우편(매감일 24:00)

Ⅷ 기타 사항
▷ 타인의 도움을 받지 않은 순수 본인의 작품이어야 함.
▷ 해당작이 없을 경우는 선정하지 않거나 작품수를 조정할 수 있음.
▷ 수상작의 저작권은 공모 주관처에 귀속됨.
▷ 중도작은 반환하지 않음.

Ⅷ 수상작 발표 2016년 11월 20일 개별 통지

주최, 천주교 대구대교구 주관, 관덕정순교기념관

2016년은 대구 순교 복자들 중 11위 복자가 순교하신 지 2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에 순교자들의 영광스러운 행적을 널리 알리고 그분들의 신심을 본받아 신앙생활을 더욱 굳건히 하고자 순교자현양 독서감상문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시시콜콜해도 괜찮아

(윤민재 지음)

자비의 대희년이자 병인순교 150주년인 올해, 한국의 천주교 신자들은 그 어느해 보다 주님의 은총과 자비의 손길을 많이 체험하는 한 해를 보내고 있다. 자신의 고귀한 생명을 바쳐 피로써 믿음을 지켜내고 증거하며 후손들에게 신앙의 진리를 전해준 신앙 선조들께 감사한 마음에 절로 웃음을 머미게 된다. 그러나 우리네 삶의 중심이 어느새 하느님, 하느님 나라가 아니라 세상과 재물에 더 기울어져 주일미사에 참여하는 가톨릭 신자수가 30%에도 못미친다는 통계를 접할 때마다, 순수하고 정성되어 믿음을 살아가며 주위에 작은 빛과 힘이 되어주는 이들의 모범은 더없이 소중하고 아름답게 여겨진다.

‘시시콜콜해도 괜찮아’라는 제목을 달고 나온 이 책은 우리가 주위에서 만나고 싶어하는 바로 그런 참신앙인, 자기 삶의 중심에 하느님을 모시고 매순간 일상의 소소한 것들 안에서 주님의 현존과 손길을 느끼며, 자신의 신앙을 후배들과 모든 이들에게 가르치고 증거하는 것을 사명으로 확인하는 한 사제의 신앙체험이다. 잘 웃고 사랑이 많고 잘 들어주며 기도하는 사제, 몸과 마음과 영혼을 치유하는 사제요, 희망을 전하고자 하는 행복한 사제, 윤민재 신부가 일상에서 겪어낸 소소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

책의 제1부는 신학생들의 영적지도를 하며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고 함께 겪어낸 신학교 시절의 추억들을, 제2부에서는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께 대한 온전한 신뢰로써 기도하며 치유의 은혜를 길어낸 일화들이다. 제3부에는 기도하는 사제로서 진리의 영, 성체 안의 예수님, 우리 내면의 지성소에 머무시는 거룩하신 주님과 하나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드리는 기도들이고, 마지막 제4부에는 양들과 함께하는 목자로서 본당에서 겪었던 일들과 신앙고백들이 아무 꾸밈없이, 마치도 수채화 물감이 번지듯, 어느 순간 독자의 마음에 따뜻하고 부드럽게 전해진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 속에서 하느님의 뜻을 찾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하던 체험을 저자는 이렇게 고백한다: “사실 난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라고 생각하며 세세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다. 때로는 의무적으로, 때로는 대충 내 말만 잠깐 하다 그만두는 일이 많았다. 그러나 주님은 당신에게 어린이이처럼 시시콜콜한 것까지도 다 말하라고 하시는 것 같았다. 소소한 것까지도 다 말씀드리고 나니 그분의 말씀을 더 확실하게 알아들을 수 있었다. 생활하면서 느끼고 생각하고 행한 작고 시시한 것들까지 말씀드리다 보면 그분이 내 곁에 계시고 내 말을 들으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또 그렇게 될 때 하느님의 말씀을 더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된다.” (본문 중에서)

‘시시콜콜해도 괜찮아’ 하라며 당신과의 친밀한 대화를 기뻐하시는 주님의 내밀한 사랑을 엿보게 하는 이 책은, 우리가 저마다의 삶에서 이루어가야 할 사명을 의식하고, 순교영성을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될 활력을, 생할한 믿음을 더욱 키워가는 데 친절한 멘토가 되어 줄 것이다.



■ 순교 복자 기념비 제막식

9월 3일(토) 오후 4시 30분 교구장 조환길(타대오) 대주교님의 주례로 ‘순교 복자 기념비’ 제막식을 했다. 올해 개관 25주년을 맞은 관덕정은 이곳에서 순교한 복자 11위를 기억하고 그분들의 영성을 따르고자 순교 복자 기념비를 세웠다. 복자 11위는 을해박해 순교자 김희성(프란치스코), 구성열(바르바라), 이시임(안나), 고성대(베드로), 고성운(요셉), 김종한(안드레아), 김화춘(야고보), 기해박해 때 순교한 이재행(안드레아), 박사의(안드레아), 김사건(안드레아), 병인박해 순교자 박대식(빅토리노) 다. 이날 제막식 전에는 행사에 참여한 교우들이 평화방송 “장하다 순교자, 신앙의 용사여!”에 소개된 김길수(사도 요한) 교수의 이윤일 요한 성인에 대한 강의 영상을 함께 보았다.



■ 병인순교 150주년 및 제22회 후원회원의 날 미사

9월 3일(토) 제막식에 이어 병인순교 150주년 및 제22회 후원회원의 날 미사가 봉헌됐다. 조환길(타대오) 대주교님의 주례로 사무처장 박영일(바오로) 신부님, 관장 최호철(안토니오) 신부님이 함께 미사를 집전했다. 조환길 대주교님은 강론을 통해 병인순교 150주년과 을해박해 순교 200주년을 기념하여 미사를 봉헌하면서, 순교자들의 삶을 생각하고 묵상하며 본받도록 하는 데 뜻을 두자고 하셨다. 또 자비의 희년을 보내면서 순교자들을 본받아 하느님의 선하심과 온유하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비의 도구로 살아갈 것을 결심하자고 하셨다. 미사 중 평생 회원증 수여식은 대주교님께서 직접 해주셨다.



남한산성 순교성지

■ 국내성지순례

7월 17일(일) 수원교구 남한산성 순교성지를 43명이 순례했고, 9월 18일(일)에는 서울대교구 절두산 순교성지를 43명이 순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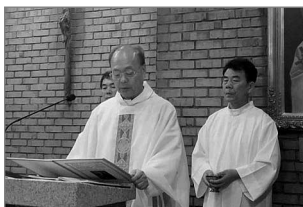
■ 장신호(요한 보스코) 보좌주교님 방문

지난 7월 12일(화) 주교 서품을 받으신 장신호(요한 보스코) 보좌주교님께서 7월 30일(토) 관덕정을 방문하셨다. 이날 장신호 보좌주교님의 주례로 김성래(하상바오로) 비서실장 신부님, 관장 신부님이 함께한 미사 봉헌이 있었다. 보좌주교님은 강론을 통해 신학생 시절의 관덕정에서의 추억을 들려주시고 관덕정 개관 25주년을 축하해주셨다. 또 하느님만이 생명을 창조하시고, 날마다 새로 주시며, 생명을 주관하심을 고백하고 재물을 섬길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마음으로 섬기고 따르도록 하자고 하셨다.



■ ‘라틴어 미사’ 봉헌

8월 13일(토) 라틴어 미사가 봉헌되었다. 교황청에서 하듯 라틴어 그레고리오 성가로 진행되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의 미사 형식이었다. 베네딕토회 박대종(디오니시오)신부님



박대종(디오니시오)신부님



성음악연구회

신부님의 주례로 성음악연구회(Cantate Domino Canticum Novum) 회원들이 함께했다. 이날 미사는 성모승천 대축일 미사로 봉헌되었다. 박 신부님은 우리말 강론을 통해 성모님을 영광스럽게 하신 하느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와 함께하심으로써 우리도 하느님을 찾아 만나는 기쁨을 누리며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하자고 하셨다.

■ 교회사 강좌



임일량(시몬)



박정자(엘리사벳)

7월 2일(토) 성지순례위원회 임일량(시몬)위원이 복자 김기량(펠릭스 베드로)와 박상근(마티아)에 대해, 8월 6일(토)에는 박정자(엘리사벳) 성지봉사회원이 복자 오반지(바오로)와 박경진(프란치스코)에 대해 강의했다.

여러분의 정성과 기도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6년 6월 24일부터 2016년 9월 23일 기간 안에 후원회비를 납부해 주신 분들입니다.

평생 회원

故김동용	故김상균	故김선자	故김영호	故김용진	故김용찬	故김원태	故김윤선
故김은정	故김진승	故김진황	故김판섭	故김학수	故김호용	故김효철	故도순이
故류영국	故박기식	故박병만	故박봉두	故박분이	故박순례	故방분학	故백태순
故서석운	故서하봉	故손기삼	故여봉달	故오인원	故윤기오	故윤형욱	故이동환
故이무출	故이종태	故임인근	故전갑득	故정 숙	故정시건	故정태석	故조경희
故조복희	故조일준	故조환조	故최막내	故추교선	故추동엽	故하상국	故한재순
故홍미경							
곽경수	권금선	김녹선	김숙희	김춘월	김홍근	김홍연	박순규
박용일	박인숙	백인숙	변정희	서정란	신순현	신진금	오영자
오지웅	이계자	이규연	이말희	이삼봉	이옥순	이정옥	임지현
장경임	정정순	주복자	최방자	최분한	하태봉	홍갑순	홍귀남
홍영숙	황보태선						

가족 회원

강명선가족	권미정가족	금 찬가족	금 훈가족	김숙이가족	김영숙가족
김영희가족	김용식가족	김운선가족	김일성가족	김정강가족	김정현가족
김정환가족	김종업가족	김종운가족	김지수가족	김희정가족	노 옥가족
류운순가족	류진춘가족	마운현가족	문정숙가족	박경진가족	박기석가족
박민호가족	박병화가족	박보현가족	박영자가족	박용일가족	박용철가족
박용택가족	박원석가족	박이순가족	박재석신부가족	박정미가족	박화수가족
배병훈 가족	배복경가족	배애자가족	백은영가족	백종희가족	서난향가족
서성교가족	손영익가족	손춘자가족	신기운가족	신수영가족	신정향가족
신혜성가족	양재명가족	오동혁가족	오인영가족	윤명섭가족	윤성민가족
윤정순가족	윤종문가족	윤현경가족	이강범가족	이수자가족	이인숙가족
이춘달가족	이태연가족	이화선가족	임말례가족	장원환가족	장이순가족
장효정가족	장희지가족	정계희가족	정만구가족	정명숙가족	정송이가족
정은정가족	정화숙가족	조경실가족	조기만가족	조성제가족	조영화가족

천봉애가족 최선미가족 최연옥가족 현은주가족 현준호가족 현진환가족
 흥태숙가족 황부자가족 황수진가족 황숙희가족 황원희가족

일반 회원

구애자 권이숙 김경신 김경원 김분이 김순애 김승찬 김영자 김은정 김정의
 김지혜 박인진 박정련 배정자 백명현 성경훈 성진현 신경숙 이명숙 이영숙
 이윤홍 이정호 임윤자 장일순 장진동 전화선 제현희 조분례 조상이 천명숙
 최순덕 최원진

※ 성함이 누락되신 분은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관덕정순교자현양사업 후원회

관덕정에서는 순교자현양사업과 순교 신심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순교 현양 운동과 각종 유물의 발굴, 조사, 연구, 전시, 보관하기 위한 노력에 후원해 주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후원회원 가입방법

- 전화를 주셔도 됩니다!
- 053)254-0151번이나 0159번으로 전화를 주셔서 성함과 세례명, 본당과 주소지, 연락처 등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 방문하셔도 됩니다!
- 관덕정순교기념관을 방문하셔서 신청서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평생회원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별다른 서류가 필요치 않으며, 명함판 사진(없으시다면 얼굴이 잘 나온 일반 사진도 가능) 2매를 준비 해 오시면 됩니다.

관덕정순교자현양사업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 회원님께는

매월 첫째 주 토요일에 후원회원들을 위한 생미사와 세상을 떠난 평생회원들을 위한 위령미사가 함께 봉헌됩니다. 망자가 되신 분을 평생회원으로 신청하시는 분들께는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 이외에 평일미사에 위령미사를 3대 봉헌해 드립니다.

원하시는 분께 순교자 현양 및 신심운동에 관한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관덕정순교기념관의 소식이 담긴 회보를 3개월마다 보내드립니다. 순교기념관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에 초대합니다. 연말 세금공제를 위한 기부금 납입 증명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 후원금 납입방법

- 납부계좌 : 대구은행 006-10-011249 (예금주 : 대구관덕정순교기념관)
 - ※ 회비를 송금해 주시는 분들은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으니, 송금 후 꼭 사무실로 **확인 전화** 부탁드립니다.
- 자동이체 : 거래하시는 은행에 거래 통장과 도장을 가지고 가셔서 저희 대구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시면 신청이 됩니다.
 - ※ **자동이체 신청 후에도 사무실로 꼭 연락주십시오.**
 - ※ 자동이체 신청시 일반회원 : 월 2,000원
 가족회원 : 월 5,000원

■ 후원회비

- 일반회원 : 연 20,000원
- 가족회원 : 연 50,000원
- 평생회원 : 연회비 없이 일백만원 이상을 기탁

- 관덕정 미사안내 -

- 화요일 : 오전 10시
- 금요일 : 오후 3시(순교자현양미사)
- 토요일 : 오후 5시(주일미사)

※ 첫째 주 토요일은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를 봉헌합니다.